"김정일 발병,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가 원인"

日 도쿄신문 "판단력 이상 없으나 수족 장애 남아"

마이니치 "4월부터 가끔 의식 잃는 등 상태 심각"

추석인 지난 14일 평양 애국열사릉 화환진정대에 놓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화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병은 미국에 요청했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연기된데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촉발 원인이라고 도쿄신문이 15일 중국 당국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 위원장의 병세에 대해 중국 정부가 "현재 판단력이 있어 지도를 하고 있으나 수족에 장애가 남아 있어 일정 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쓰러진 것은 지난 8월14일로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이 같이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테러지원국 해제가 예상됐던 8월11일까지 극도로 긴장상태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쓰러지자 중국 정부는 즉각 5명의 전문의를 파견했으며, 김 위원장은 수술 후 평양 교외의 봉화초대소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 9일 북한 건국 60주년 기념식 행사에 불참했지만 북한 정규군이 행사장 부근에서 대기하며 참석에 대비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김 위원장이 금년 4월부터 가끔 집무중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상태여서 당무 등 중요 사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야간과 새벽에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5, 6월에는 지병이 상당히 악화돼 밤에 일할 수 없게 되고 판단력도 떨어져 북한이 6자회담 등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그의 병세와 관계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의식을 잃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 시작한 지난 4월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던 시기로, 중국 차세대 지도자의 방문을 성공시키기위해 김 위원장이 회담까지 2개월간 집무를 대폭 축소한 채 치료와 휴양에 몰두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작년 여름부터 신장과 심장 등 복수의 장기에 이상증세를 보이면서 병세가 서서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11월초 사단급 연합상륙작전"

한·미 해병대 1만명 참여…사상 최대 규모 될 듯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 병력 1만 명 가까이 참여하는 사단급 연합상륙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5일 "지난 7월 28일 월터 샤프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연대급 미 해병 부대를 차출, 11월 초 한국군이 실시하는 호국훈련에 참가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는 한국에 상륙작전을 위한 사단급 해병 병력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샤프 사령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샤프 사령관은 미국 해병대 1개 연대와 한국 해병대 2개 연대 병력이 참가하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는 걸렀지만 매년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전 RSOI), 독수리(FE) 연습에서 각각 해병대 1개 연대 병력이 참여하는 상륙훈련을 실시해 왔다. 1개 연대 병력은 3천 명 수준이다. 또 2006년 호국훈련부터 한국 해병대가 사단급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참가 병력은 2개 연대급 수준이고 지난해 미 해병대가 훈련을 함께 했지만 참가 병력은 1개 중대 수준이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샤프 사령관의 계획대로 훈련이 실시된다면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최초의 사단급 한·미 해병 연합상륙훈련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 같은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관련, "미군 병력의 참가 규모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양국 군 채널을 통해 협의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남북관계와 훈련 비용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의 훈련은 예정대로 11월 초 실시할 예정"이라며 "참가하는 미군 병력 및 장비 규모 등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호국훈련은 군단급 부대의 작전계획 시행능력 제고와 대규모 합동작전 및 통합전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합참 주관 하에 1996년부터 실시해온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다. /연합뉴스

북핵협상에 '김정일 건강 변수'

호전 땐 '협상 진전' 기대

악화 땐 '장기 교착' 국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사실이 사실상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소식통은 15일 상황에 따라 북핵 협상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될 경우 협상도 진전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군부의 입김 등으로 인해 협상이 장기 교착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김 위원장의 상태가 한때의 고비를 넘어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휘권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현재 답보 상황인 핵 검증 협의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 5~7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체류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이 핵 검증 의정서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검증 형식 면에서 '신축적인 내용'이 담긴 방안을 다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북·미협의 재개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미국은 특히 샘플 채취나 사찰요원의 현장 접근 등에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검증의 형식은 신축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북한입장도 많이 고려된 것"이라면서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히 최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일본의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위원장의 건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난관들은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해 긍정적 협상 전망을 가능케 했다.

이에 대해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긍정평가하는 등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한 것처럼 중국 의료진에 의해 한달전 수술받고 회복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사지에 장애를 겪고 있는 등 정상적인 집무가 불가능할 경우 북핵 검증협상도 예상보다 긴 교착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팔순 앞둔 권노갑 '인생 2막'

내년 미국 유학, 영문학 석사 학위 도전

동교동계의 맏형격인 권노갑(78) 민주당 전 고문이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내년에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권 전 고문은 내년 3월부터 1년간 미국 미주리대학교나 하와이 대학교에서 연수를 밟으며 정치학을 공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영문학 석사학위를 따기위한 준비과정으로, 연수과정에서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GRE와 토플을 본격 공부할 예정이다. 권 전 고문은 오는 11월 미주리대의 초청으로 10일간 강연을 하는 등 유학을 앞두고 '몸풀기'를 한다. 미주리대의 학습여건을 살펴본 뒤 미주리대와 하와이대 중 한 곳을 정한다는 것이다.

1963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DJ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가 정치를 접은 뒤 인생 2막에 도전하게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정두언 의원, 뮤지컬 배우 변신

창작 뮤지컬 '러브레터' 특별출연

노래하는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뮤지컬 배우가 된다.

정 의원은 오는 10월11일부터 이틀간 서대문구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장애인단체 및 저소득층·결손가정 초청 창작 뮤지컬 '러브레터'에 특별출연한다.

서울시 문화회관과 서대문구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 뮤지컬은 1970년대 여고 기숙사를 배경삼아, 여고생들의 가슴을 뛰게하는 '러브레터'를 소재로 한 1시간 50분짜리 작품이다. 정 의원은 이 작품에서 기숙사 사감의 애인 '봉구'역을 맡아 연기와 함께 70년대 유행했던 가요를 부를 예정이다.

정 의원이 뮤지컬에 출연하게 된 것은 명지대 사회교육원 김선호 원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 의원의 친구로서 그의 '예인(藝人)' 기질을 잘 알고 있는 김 원장이 출연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상득 의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18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회장으로 내정, 대일외교의 한축을 담당하게 됐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15일 "이 전 의원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직을 최근 수락했다"면서 "간사장 선임이 완료되면 곧바로 연맹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직은 여당 중진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로 돼있으며,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맡았지만, 18대에서는 정권교체로 일찌감치 이 의원이 거론돼왔다. /연합뉴스

野 "홍문표·김광원 임명은 국민과의 약속 배반한 인사"

야권은 15일 한나라당 홍문표, 김광원 전 의원이 농촌공사사장과 마사회 회장에 각각 임명·내정된 것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한 인사"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18대 총선 낙선자는 6개월 안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스스로 그 약속을 걷어차 버리며 배반의 인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갑자기 돈을 번 부자들을 '졸부'라고 하는데, 권력에 대해 끊임없이 탐욕을 보이고 있는 준비 안된 이 정권을 '졸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떼거리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